

“오진위험, 법적책임 애매”

〈의협〉

“만성질환자 한시적 조치”

〈정부〉

‘제한적 원격진료’ 정부-의협 충돌

의협 “환자 치료 지연, 전면거부”
정부 “감염 안정되는 시기까지만
의료기관 협조하에 허용한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전화상담과 처방’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코로나19 관련 대의원 긴급 안내문’을 공지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며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전화로 의사의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상담, 처방하는 게 가능하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받게된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 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통해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전화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일어난 사망 사례를 볼 때 기저질환자의 위험도가 높은 것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이번 조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정례적인 검진과 또 투약이 불가피한 분들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간 내 제한적인 조치”라며 “적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의료기관의 협조하에 이러한 조치를 허용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의 감염이 의심이 된다면 전화 처방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위험성이 낮고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는 환자라면 가족을 통한 내방, 전화 등을 통한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24일 오전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신과병동 103명 감염, 5명 사망

청도대남병원 ‘집단감염’

국내 전체 확진자의 14.8% 달해
의사 등 병원 관련 확진환자 10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병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입원환자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정신병동의 폐쇄 공간에서 지내며 면적이 약해진 환자들을 덮치면서 벌써 5명이 목숨을 잃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국내서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모두 7명인데, 이 중에서 국내 첫 사망자를 포함해 5명이 청도대남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해있었던 환자들이다.

대남병원은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면서 신천지대구교회와 더불어 대구·경북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의 진앙으로 떠올랐다.

청도대남병원 5층 정신과 폐쇄 병동에서는 지금까지 입원 환자 가운데 2명

을 제외한 103명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현재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3명에 달한다.

국내 전체 확진자(763명)의 14.8%로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환자 456명(59.8%) 다음으로 많다.

대남병원에서 환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은 폐쇄 병동 특성상 밀접한 접촉에 다환기 부족 등 감염병에 취약한 열악한 환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대남병원에서 지난 15일 전후로 입원환자들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났으며,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상태가 좋지 않은 장기 입원환자들을 중심으로 폐렴과 급격히 진행되는 호흡 부전으로 숨지는 환자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입원환자들 사이에 상당 시간 유행했고 그러면서 일부는 중증으로 발전했지만, 제대로 급성기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돼 위중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감기증세’ 대구시민 2.8만명 진단검사

확진환자 231명 추가 총 833명
대구 지역 확진자 487명 달해
대국민 예방수칙 개정·배포

정부가 대구 지역에서 급속히 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필사적으로 막는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도록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하고, 감기증세를 보이는 대구시민 2만800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확진자 161명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코로나19 확진자는 833명으로 늘어났다. 허룻밤새 16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고, 오후에 70명이 추가됐다. 하루만에 늘어난 환자는 231명에 달한다.

청도대남병원에서 두명의 사망자도 추가됐다. 55번째 환자(60세, 남성)와 286번째 환자(63세, 남성)가 사망하며 사망자는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172명이 대구에서 발생하며, 경북 23명, 경기 12명, 경남 3명, 부산 14명, 광주 1명도 추가됐다. 서울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특히, 대구 지역 확진자가 487명으로 늘어나면서, 방역당국도 비상에 걸렸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에서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가 커서 이 지역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인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수칙에 따르면, 씻지



2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는 1층 한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방역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 병원 사회복지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을 코호트 격리했다. /연합뉴스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전국 확산 막기 총력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우선 방역당국은 정부가 앞으로 2주간 감기 증상을 보이는 대구시민 2만8000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대구교회 교인까지 합치면 총 3만7000명에 대한 검사가 2주간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에 대한 검사도 시행한다. 이제까지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는 458명으로, 전체 60%를 차지한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교인 명단 9535명 중 증상이 있는 신도는 1250여명이다. 대구 이외 지역 신천지 교인도 파악 중이다.

김 부본부장은 “신천지 쪽에 대구뿐만 아니라 그 시기 대구를 방문해 종교 행사에 참석했던 교인의 인적사항을 요청했다”며 “확진 환자가 나왔던 다른 지역의 신천지교회 교인의 인적사항도 요청한 상태로, 신천지에서 충분한 협조가 이뤄지는지를 보고 추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대구 지역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구 지역내 확진환자 접촉자는 총 9681명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를 전원을 입원 및 격리 조치하고, 관내 보건소를 통해 접촉자의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대구시 관내 음압 병실 54개 중 51개를 사용 중이며,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156개 병상을 우선 확보한 상태다. 앞으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구의료원 입원환자들을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2월 말까지 45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병원 내 감염 차단 ‘국민안심병원’ 운영

보건부, 호흡기질환 환자 분리 진료
감염 불안 덜고 환자·의료인 보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코로나 감염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의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으로, 병원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다.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우선,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된다.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하여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감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과 호흡기환자들의 경우,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